

제약, 신입사원 출신 CEO “수두룩”

상위 50사 중 11명으로 20% 넘어 … 전문성 강조로 연구개발 출신 3명

신입사원이 회사의 대표라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란 <하늘에 별따기>이지만,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꿈꿔왔을 성공 신화가 제약업계에서는 드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현재 매출 상위 50개 국내 제약기업 최고경영자 가운데 해당 기업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승진을 거듭한 CEO가 11명으로 20%가 넘는다.

업계 1위인 동아제약 김원배 사장은 1974년 연구·개발분야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2005년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유한양행 차중근 사장도 1974년 입사해 30년만에 사장에 임명됐으며 2008년 6년째 회사를 이끌고 있다.

중외제약 김지배 사장, 녹십자 허재희 사장은 각각 1979년과 1975년 입사해 2007년과 2008년부터 회사를 이끌고 있다.

1960년 일동제약에 발을 들여놓은 이금기 회장은 1984년 사장직을 맡아 외환위기 이후 워크아웃 등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면서 주요 대주주가 됐다. 이금기 회장은 사실상의 오너 회장으로 신화로 불릴 만 한 사례이다.

그밖에 한독약품 고양명 대표를 비롯해 동화약품 조창수 대표, 삼진제약 이성우 대표, 태평양제약 이우영 대표, 일양약품 김동연 대표, 국제약품 나중훈 대표도 신입사원 때부터 한 우물을 판 CEO들이다.

모두 전문분야는 연구개발, 마케팅, 영업, 생산, 재무 등 다양하다.

제약업계에 신입사원 출신 CEO가 적지 않은 이유는 전문성이 강조되면서 동시에 보수적인 업계 분위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평사원에서 승진한 대표이사 가운데 연구개발부문 출신의 CEO가 3명일 정도로 전문성이 중요하게 평가받는 분야”라며 “외부 인사 영입이나 최고경영자 경질 등 파격인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보수적인 보건의료업계 분위기도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6/12>